



제목	로마제국 쇠망사1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민음사
발행일	2008. 7. 21.
저자	에드워드 기번 윤수인, 김희용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694
ISBN 또는 ISSN	978-8937426315

### 내용 요약

이 책은 138년부터 1453년까지 총 1315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범죄, 어리석은 행동, 불운’이 로마제국 멸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탐구한 글이다. ‘한 문명의 흥망 성쇠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초래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권은 로마 제정이 강력하고 성숙했지만 쇠퇴를 향해가던 트라야누스 황제와 안토니누스 황제 시기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의 크리스티교 박해까지를 담고 있다. 로마사를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어서 페르시아에 관한 부분은 적지만 당시 동서 두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페르시아에 관한 부분은 8장 아르타크세르크세스(아르다시르 1세)의 파르티아 멸망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성립, 그의 성격과 원칙, 군주정 복고 후의 페르시아 정세에 관한 부분이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와 사제들의 위세, 종교적 의무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조직력이 없는 파르티아에 비해 조직력과 공성 기술을 가진 페르시아군의 장점도 기록되어 있다.

로마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다 보니 페르시아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도 있다. 로마군과 샤푸르 1세의 군대의 대립에 대해서는 10장 ‘야만족의 침입’이라고 썼다. 또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포로로 잡은 업적을 남긴 샤푸르 1세에 대해서는 전투 과정이나 황제 처리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면 13장 로마의 갈레리우스와 페르시아의 나르세스가 격돌하여 로마가 협정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5개 속주를 양도받는 과정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